

미합중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위원장의 싱가포르회담 공동성명

미합중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영속적이고 굳건한 한반도평화체제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심도 깊고 진실한 의견 교환을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안전보장을 약속했으며,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확고한 의지와 변함없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새로운 북미관계의 수립이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임을 확신했고, 상호신뢰구축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음을 인식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1. 미합중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양국 국민들 바람에 따라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하기로 약속한다.
2. 미합중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영속적이고 안정된 한반도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이다.
3.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
4. 미합중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시포로/행방불명자의 유해 복구에 약속한다. 이미 신원이 확인된 유해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본국송환을 포함한다.

[우리는] 북미정상회담이 **역사상 최초로** 큰 의미를 갖는 획기적인 사건이었고, 북미정상회담이 양국 간의 적대적 긴장을 수십 년 만에 극복한 **역사상 첫** 사건이었으며, 북미정상회담이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역사의 출발점**임을 인정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이 공동성명서의 내용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이행하기로 약속하였다. 미합중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마이크 폼페이 미국무장관과 북한고위급 인사가 이끄는 후속 협상을 개최하기로 약속하였다.

미합중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새로운 북미관계의 발전과 그리고 세계와 한반도의 평화, 번영, 안보의 증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2018년 6월 12일
센토사 섬
싱가포르